

韓·中·日 고전문학 속의 여성과 머리카락*

이경미**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머리카락의 의미
 - 1) 現世的 의미
 - 2) 超越的 의미
3. 나가며

【초록】

본고는 고대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머리카락의 의미를 현세적 의미와 초월적 의미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 그 속에 반영된 당시의 여성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중일 삼국 모두 유교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자르지 않는 긴 머리아말로 ‘효’의 출발점으로 보았고, 또한 ‘젊음이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길고, 칠흑같이 검고 풍성하며, 잘 정리된 머리카락을 지닌 여성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봉건적 종법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으로 보았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짧고 뽕뽕하며, 적거나 빠지는,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은 추하다고 여기고, 때로는 이를 확장시켜 내면적 추녀로까지 규정짓기도 하였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현세적 미의 기준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월적으로는 자신의 분신, 영혼의 일부 혹은 감정표출의 통로로까지 확장되며, 반대로 남성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여성에게는 번뇌를 가져다주는 애욕과 욕망의 화신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이며 제거되어야 하는 이미지로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머리카락의 다면성은 한중일 삼국의 사상적·문화적·토양적인 차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여성, 머리카락(頭髮), 한중일 고전문학, 비교문학

* 이 논문은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leejingmei@gdsu.dongseo.ac.kr)

1. 들어가며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¹⁾

서양문학의 근간이 되는 구약성경 속의 지혜의 왕 솔로몬을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 것은 다름 아닌 술람미 여인의 갈멜산처럼 풍성하게 드리운 아름다운 자주빛갈의 머리카락이었다. 또한 신약성경 속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림으로 지극한 존경의 마음과 헌신을 표현하였다.²⁾ 이러한 영혼을 매는 매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에게 헌신되었던 여성의 머리카락은 때때로 추하고 치명적인 이미지로 변하기도 하였다. 그리스 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마저 반하게 했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던 메두사는 여신 아테네의 질투로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지독하게 끔찍한 뱀의 소굴이 되어 버린다. 또한 그 흉측한 모습을 보는 남성들은 심장이 멎게 되는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게 된다. 결국 메두사는 자신의 흉측한 머리카락 모습대로 뱀의 소굴로 들어가 모든 악을 지배하는 절대악이 되고 만다.

이처럼 여성의 머리카락에 대한 아름다움과 추함의 이중적 이미지는 서양 중세로 내려와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일의 로렐라이 전설 속에는 우수에 찬 노래를 부르며 뱀사공을 유혹해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탐스러운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인어가 등장하지만 한편 그림형제의 동화 『라퐁젤』 속의 라퐁젤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왕자와 밀회를 나누며 결국 마녀를 물리치고 행복한 결말을 맺는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오헨리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의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카락은 당신을 위해서 팔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은 하나하나 셀 수 있을는지 몰라도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서 팔았어요.”라는 아내의 고백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었다. 이처럼 성경과 신화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세를 거쳐 그리고 지금까지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성의 전부이자 때로는 자신의 존재, 영혼의 일부이기까지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문학을 근간으로 하는 동양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중일 고대사회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유교 경전인 『효경(孝經)』의 “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라는 구절은 누구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인간윤리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윤리관은 ‘몸’의 일부인 머리카락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자르지 않는 긴 머리아말로 ‘효’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도 여성의 자르지 않은 길고 풍성한 머리를 긍정적이라고 보았고, 동시에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와

1) 구약성경 아가서 7장 5~6절

2)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

반대로 동물 털같이 짧고 뽀뽀한 머리카락은 추녀와 악녀들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의 추함을 증폭시키는 이미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현세적 미의 기준 외에도 자신의 분신 혹은 영혼의 일부로 간주하여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 연인에게 보내며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성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여성에게는 번뇌를 가져오는 애욕과 욕망의 부정적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발’을 통해서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 제2장에서는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들과 머리카락을 현세적 의미에서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으로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초월적 이미지로 자신의 분신, 감정표출의 통로로서의 긍정적 의미와 치명적인 유혹, 애욕과 욕망의 근원으로서 제거되어야 하는 부정적 이미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분석을 위해 한국의 경우에는 『구운몽』, 『춘향전』, 『박씨전』, 중국의 경우에는 『金瓶梅』, 『聊齋志異』, 『紅樓夢』 등을 주된 텍스트로 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근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요루노네자메(夜の寝覺)』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위 작품들을 통하여 고대 한중일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의 머리카락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그 저변에 깔린 당시 여성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의 머리카락의 의미

1) 현세적(現世的) 의미

(1) 美

아름다운 여성은 시간과 공간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과 관점이 시대적, 사회적, 나라별 문화와 역사적 조건과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 그러나 여성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여성성과 여성미를 드러낸다는 데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었다. 특히 한중일 고대사회에서는 여성의 머리카락이 여성의 미추(美醜)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의 고전수필의 백미인 겐코법사(兼好法師)의 『쓰레스레구사(徒然草)』에서도 여성의 머리카락이 여성성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3) 김문희, 「고소설 속에 나타난 미인(美人)의 표상과 미의식」, 『인문학연구』, 51집, 2016, p.102.

“여자는 머리카락이 멋있는 것이 사람의 눈을 끈다. … 어떤 일에 즈음해서 사소한 모습으로도 남자의 마음을 동요시킨다. … 스스로 경계해서, 두려워해야 하고, 삼가야 할 것은, 이 마음의 동요이다.”⁴⁾

이처럼 여성의 머리카락이 여성의 상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신화와 전설, 문학작품의 소재로 각광을 받아 왔다는 점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러한 사상은 문학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한중일 고전문학 속의 미녀들은 대부분 칠흑같이 길고 구름처럼 풍성하고 긴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머리카락을 귀중한 것으로 여겼고,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으로 본 유교의 ‘효’의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은 이러한 당시의 봉건적 질서에 순종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몸의 일부이자, 자신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머리카락을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로서의 삶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는 젊음의 상징인 검고, 자르지 않은 길고 풍성한 머리를 긍정적이고 보았고, 동시에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으로 간주되며, 정착되었다. 머리카락을 통한 외면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은 내면적·도덕적인 면으로까지 확대되어 대부분의 선한 여주인공은 외모가 아름답고 성품이 좋으며,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하는 도구로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등장하곤 하였다. 반대로 악인은 외모가 추하고 성품을 간악한 것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당시의 윤리의식이 악인형 인물묘사에 투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⁵⁾ 아래에서는 한중일 고전문학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을 기준이 되고 있는 색깔, 길이, 양감과 질감, 그리고 정돈된 상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

조선시대에는 구색(九色)을 갖추어야 미인이라 여겼고, 그 중에서 세 가지 항목을 짝을 맞추어 평가하는 삼목(三目) 평가법이 있었다. 삼백(三白)은 흰 것 세 가지로 피부, 치아, 손을 말하며, 삼흑(三黑)은 검은 것 세 가지로, 모발, 눈썹, 눈동자가 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홍(三紅)은 붉은 것 세 가지로 입술, 뺨, 손톱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전미인의 조건인 흰 피부와 치아, 붉은 입술과 뺨을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칠흑같이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은 필수조건이었다.⁶⁾ 이러한 여성의 머리카락에 대한 미의식은 이미 춘추전국시대 『左傳』의 ‘칠흑처럼 검은머리 오발(烏髮)’로 미인의 기준으로 삼은 기록에서도 보여 지며 ⁷⁾ 이 후 시와 소설 등의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오발선빈(烏髮蟬嬪 : 까마귀같이 검은머리, 매미 날개와 같이 윤기 있는 머리카락)’등의 수식어로 중국 고전 미인들의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는

4) 女は髪のためだからこそ、人の目立つべかんめれ、… ことにふれて、うちあるさまにも人の心を惑はし、… 自ら戒めて、恐るべく、慎むべきは、この惑ひなり。(日本古典文學全集：『徒然草』，小學館，1985, pp.99-101)

5) 김문희, 「고전소설의 인물묘사와 독서미감」, 『어문학』, 제120집, 2013, p.301.

6) 조용진, 『미인』, 해냄, 2007, p.403.

7) 은나라 유잉씨(有仍氏)에게는 미모의 부인이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까마귀같이 검은데다 윤기마저 흘렀으며, 머리술도 구름처럼 많고 머릿결도 검은 폭포처럼 발끝 아래로 흘렀다고 한다.

머리카락을 찬양하였다. 당나라 시인 이하(李賀)의 『美人梳頭歌』의 ‘섬섬옥수로 새카만 머리 다시 틀어 올리고 비녀 꽂으려 해도 검은 머리 매끄러워 꽂지 못하네. (纖手却盤老鴉色, 翠滑寶釵簪不得)’ 라는 구절은 아름다운 검은 머리카락을 빗는 미인의 자태를 잘 묘사하고 있으며, 소설 속에서도 미인을 묘사할 때 ‘검은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명의 풍몽룡의 『경세통언(警世通言)』에 실린 「옥당춘낙난봉부(玉堂春落難逢夫)」에서도 기녀이지만 절개와 지조를 지킨 ‘연회에 모인 모든 기녀들을 다 합쳐도 미치지 못하는’ 절세가인 옥당춘의 미모를 ‘검은 구름 같은 머리카락’으로부터 시작하여 묘사하고 있다.

머리카락은 검은 구름과 같이 머리에 놓여 있고, 눈썹은 초승달과 같이 그려져 있고, 피부가 서설과 같이 하얗고, 두 볼이 아침놀과 같이 붉게 띄고, 소매 안에 있는 손은 옥순(玉笋)과 같이 가냘프고, 취군(翠裙) 밑에 발은 금련(金蓮)과 같이 작다. … 이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여자들을 합쳐도 그녀만 미치지 못한다.⁸⁾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작자미상의 『상사동기』에서 이생이 화산군의 시녀 영에게 첫눈에 반하는 장면에서도 ‘검은 머리카락’이 등장한다.

나이는 겨우 열여섯 살 정도 되었는데, 사뿐사뿐 걷는 고운 발걸음에 길가의 먼지마저 일지 않았다. 허리와 팔다리는 가냘프고 어여뻔으며, 몸매가 아름다웠다. … 옥비녀를 풀어 윤이 나는 검은 머릿결을 가볍게 흔들자, 푸른 소매는 바람에 나부끼고 붉은 치마는 맑은 냇가에 어리어 반짝였다. ⁹⁾

조선시대 작자미상의 가문소설 『조씨삼대록』의 절세가인 정소저의 미모를 묘사할 때에도 ‘검은 머리카락’이 달같이 하얀 이마와 대조되어 흑백의 대조미마저 느끼게 한다.

달 같은 이마는 반달이 푸른 하늘에 비스듬히 떠 있는 것 같았고 양쪽으로 틀어 올린 아름다운 검은 머리는 백 척 높이에 있는 옥 같은 구름을 꿰고 있는 듯하다.¹⁰⁾

한편 조선 후기 작자미상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머리카락을 ‘난초같이 푸른 머리’라고 묘사하고 있다.

족자를 내어노니, 화공이 분부 듣고 족자 포쇄(曝曬)하야 유탄(柳炭)을 손에 들고 심소저를 바라본 후, 이리 저리 그린 후에 오색 화필을 좌르륵 펼쳐, 각색단청 벌려 놓고 난초같이 푸른 머리 광채가 찬란하고, 백옥같은 수심 얼굴 눈물흔적 완연하고, 가는 머리 고운 수족 분명한 심소저라. 훨훨 떨어노니, 심소저가 돌이 된다. ¹¹⁾

8) 公子看玉堂春果然生得好：鬟挽乌云，眉弯新月。肌凝瑞雪，脸衬朝霞。袖中玉笋尖尖，裙下金莲窄窄。雅淡梳妆偏有韵，不施脂粉自多姿。便数尽满院名姝，总输他十分春色。(冯梦龙, 『警世通言』, 北方文艺出版社, 2016, p.198.

9) 이상구 역주, 『상사동기』, 『17세기 애정기소설』, 월인, 1999, p.161.

10)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소명출판사, 2010, p.50.

11) 진규태, 『심청전』, 『한국고전문학대계』, 명문당, 1991, p.218.

심청의 ‘난초같이 푸른 머리’라는 표현은 난초의 가늘고 긴 잎이 여성의 긴 머리카락과 비슷하고, 까맣다 못해 푸른색을 띠는 머리를 비유한 표현으로 보여 진다. 12)

이러한 검은 머리카락에 대한 동경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에서도 미백의 얼굴과 대조의 미를 연출하는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아름답다는 의식이 있었다. 헤이안시대의 형부와 처제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사랑을 애뜻하게 그린 『요루노네자메(夜の寢覺)』의 오키미(大君)의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눈에 띄게 품위 있고 아름답고 고상하며, 윤기가 흐르는 칠흑같은 검은 머리칼, 촉촉한 머리 카락 하늘하늘 아름답고, 옷자락까지 늘어뜨린 채 여유 있는 자세로 계셨다.13)

무로마치시대의 오토기조시(御伽草子) 『사이키(さいき)』에서도 본처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두 말없이 남편(사이키)을 떠날 만큼의 절세미인이 등장한다. 그녀 역시 ‘먹을 흘린 것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다.

여인의 자태는 세상에도 둘도 없을 만큼 빼어나, 마치 물총새의 깃털처럼 반지르르 윤기 도는 머리카락이 검푸른 판자에 먹을 흘린 것처럼 등에 흘렀다. 고운 얼굴은 달도 시샘하고 꽃도 질투할 정도이다.14)

이와 같이 한중일 삼국 모두 칠흑같이 검푸른 머리카락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검은 머리카락을 젊음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고전소설 속 여성들의 나이가 대부분 ‘이팔’, ‘십 오세’, ‘열여덟 가람’ 으로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았다. 이와 반대로 여성의 백발은 때때로 늙음과 비참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아름다움의 관점에서는 예외가 없었다.

나. 긴 머리카락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몸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러한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는 자르지 않은 길고 풍성한 머리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동시에 여성에게는 아름다움으로 간주되었다. 통일신라 김부식의 『三國史記』 제17권에는 고구려 12대 왕인 중천왕이 관나부인(貫那夫

12) 이처럼 미인의 검은 머리카락을 푸른색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조선시대 소설 속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조선시대 작자미상의 애정소설 『주생전』에서도 주생이 자신에게 순정을 바치는 배도를 한 순간에 잊게 할 만큼 매력적인 선화의 미모를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이가 14, 5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부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뿜혀 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 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 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미소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 했다.”

13) 장징,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336.

14) 박연숙, 『오토기조시』, 지식과 교양, 2017, p.142.

人)을 왕비로 맞이하였는데, ‘그녀는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 길이가 아홉 자나 되는 미인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¹⁵⁾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古事記』와 『日本事紀』에도 이름이 ‘髮長比売’인 ‘국색(國色)’인 미녀가 등장한다.¹⁶⁾¹⁷⁾ 긴 머리에 대한 숭상은 일본문학에서 더욱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헤이안 시대의 미인들이 틀어 올리거나 쪽을 찌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길게 푼 검은 머리카락은 종종 여성의 성적 순종을 상징하고 하였다. 여성의 길고 검은 머리는 역사적으로 생명력, 성적에너지, 성장, 출산과 동일시 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헤이안 시대의 열전체(列傳體) 역사담인 『오카가미(大鏡)』에서는 머리카락이 가마 밖으로 나와 추녀 안쪽에 걸릴 만큼의 긴 머리카락의 미인이 등장한다.

“용모가 실로 아름다우며 또 사랑스럽다. 내전으로 입궐하시려 가마에 오르실 때 몸은 벌써 가마 안으로 들어섰는데도 그 머리카락은 여전히 추녀 안쪽에 걸쳐 있었다.”¹⁸⁾

헤이안 시대의 최고의 여성작가 무라사키시키후(紫式部)의 『무라사키시키후닛키(紫式部日記)』에는 당시 궁중 여성의 얼굴과 화장에 관한 자세한 묘사가 다수 등장한다.

大納の君은 몸집이 아주 작는데, 피부가 하얗고 귀엽고 얼굴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있는데 걸 보기엔 무척 날씬해 보이고 머리는 키보다 3촌정도 길고 머리카락이 난 상태로 아름답다. 얼굴도 아름답고 행동거지나 태도도 가련하며 세련되었다. ¹⁹⁾

이처럼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긴 머리카락이야말로 봉건적 종법 질서에 순종하는 여성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여겼고, 이러한 사상은 곧 여성의 외적인 미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다.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 대한 동경은 중국문학의 비조인 『詩經·鄘風』 ‘君子偕老’ 편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²⁰⁾ 작가는 ‘鬢髮如雲’로 구름처럼 풍성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머릿결

15) 貫那夫人顔色佳麗, 髮長九尺, 王愛之. (『三國史記』第十七卷, 「高句麗本紀」第五)

16) 天皇、日向国の諸県君が女、名は髮長比売、其の顔容麗美しと聞し看して、使はむとして喚し上げし時に、其の太子大雀命、其の嬢子の難波津に泊てたるを見て、其の容姿の端正しきに咸でて(中略)、天皇、即ち髮長比売を以て其の御子に賜ひき. (『古事記』中巻, p.263)

17) 人有りて奏して曰さく、「日向国に嬢女有り、名は髮長媛といふ、即ち諸県君牛諸井が女なり。是、国色之秀者なり」とまをす。天皇、悦びたまひて心裏に覓さむと欲す. (『日本事紀』, pp.477-478)

18) かたちをかしげにうつくしうおはしけり。内へまゐりたまふとて、御車に奉りたまひければ、わが御身は乗りたまひけれど、御髪のスそは、母屋の柱のもとにぞおはしける. (『大鏡』, pp.117-118)

19) 藤岡忠美, 『紫式部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2003, p.134.

20) 鬢髮如雲 不屑鬢也, 玉之瑱也 象之掄也, 揚且之哲也, 胡然而天也 胡然而帝也. (『詩經·鄘風』)

을 가진 여성을 하늘의 천사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중국문학사상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으로 칭송받고 있는 위진남북조 문인 조식의 『洛神賦(낙신부)』에서도 여신 복비(宓妃)의 '구름 같은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조식으로 하여금 '이제 낙수(洛水)를 뒤로하고 돌아가려니, 발걸음은 움직여도 마음이 떠나질 못한다네.'라는 탄식으로 중국시의 걸작으로 칭송받고 있다. 또한 중국역사상 최고의 미녀로 손꼽히는 양귀비와 현종의 사랑을 노래한 백거이의 『長恨歌(장한가)』에서도 '구름 같은 귀밑머리(雲鬢花顏金步搖)'가 등장함으로 '구름'같이 풍성한 머릿결은 중국역사와 문학사상 최고의 미인의 필수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고전시가문학 외에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미인들도 모두 한결같이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다.

청초의 포송령의 『聊齋志異·西湖主』에서도 가난하지만 선량한 진필교(陳弼教)가 상처 난 악어를 치료해 주고 그 보답으로 공주와 행복하게 살고 신선이 된다는 이야기다. 서호공주의 아름다움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구름과 안개같이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시작하고 있다.

쪽진 머리는 운무(雲霧)가 모인 듯하고 허리는 바람에도 놀랄 것처럼 가늘었다. 옥 같은 꽃술도 붉은 빛의 옥돌로도 그녀의 미모와 견줄 수 없었다. 21)

조선시대의 대문호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에도 각각의 개성을 지닌 아름다운 팔선녀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진채봉의 미모를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구름 같은 머리가 귀밑까지 드리웠고 옥비녀는 반쯤 기울어졌으며 아직 봄잠이 부족해하는 모습이 하도 천연스럽게 아름다워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비슷하게 조차 그릴 수 없었다. 22)

조선시대 작자미상의 기생 옥단춘의 절개를 찬양한 『옥단춘전』에서도 연회에 모인 평생기생들의 미모를 아래와 같이 그리고 있다.

녹의홍상(綠衣紅裳)의 평양 기생들은 각별히 곱게 단장하고, 구름 같은 머리채를 반달같이 둘러엮고, 버들 잎 같은 눈썹을 여덟 팔(八)자로 다듬고, 옥 같은 연지 불은 삼사월 호시의 꽃송이 같고, 박속같은 잇속은 두 이(二)자로 방긋 웃어 반 만 벌리고서, 흰 모래밭에 자라 같은 걸음으로 아기작 아기작 왕래하니 어느 이 황홀하지 않으랴. 23)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에 대한 동경은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헤이안 시대의 『오카가미(大鏡)』에서도 흰 종이 위에서 흰색이 보이지 않은 정도로 술이 많은 미인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흰색의 종이와 대비해서 흑백의 대비마저 증폭시키고 있다.

“종이 위에 머리채를 올려놓았더니, 머리칼 사이로 종이의 흰 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고

21) 김혜경, 『요재지이』, 민음사, 2002.

22) 김만중(정병설 역), 『구운몽』, 문학 동네, 2013, pp.34-35.

23) 김기동, 『이조해학소설선』, 정음사, 1975, p.50.

한다.”²⁴⁾

이처럼 고대 한중일 삼국 모두 검은 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이 ‘젊음’을 상징하고 있었고, 이것은 곧 젊음이 아름답다는 미의식으로까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라.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일본 중세 수필집 겐코법사(兼好法師)는 『쓰레즈레구사(徒然草)』에서 ‘얼굴모양은 좋아도 머리모양이 좋지 않거나 흐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씨가 드러나 무척 꼴불견이다.’ 라고 말함으로 여성의 머리모양과 단정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고 심지어 마음의 아름다움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에도시대의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의 「뱀녀의 음욕(蛇性の姪)」은 중국의 『白蛇傳』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작품으로 인간으로 변신한 뱀이 남자에게 반해 집착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끝나는 내용이다. 작품 속 백사가 변한 마나꼬(真女兒)의 아름다운 모습에 주인공 도요오(豊雄)는 한 눈에 반해 버린다.

아직 스물이 채 안 되어 보이는 용모가 수려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자태가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 먼 산의 경치를 아름답게 물들인 의복을 입고 있었다. ... 그녀는 도요오를 보더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데, 그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도요오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설레었다.²⁵⁾

마나꼬의 단정하게 빗어 정리된 머리카락은 수려한 용모와 아름다운 의복의 아름다움을 배가하며, 도요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후반 마나꼬가 질투와 원망으로 뒤덮여 뱀으로 변신 후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당장이라고 한 입에 삼킬 것 같은’ 동물적 본성이 폭발하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조선의 『춘향전』에서도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땀은’ 단정한 머리로 청초한 춘향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고 있다.

난초같이 고운 머리, 두 귀를 눌러 곱게 땀아 비녀를 바로 꽂고 비단치마 두른 허리 다 피지 아니한 버들들이 힘없이 드리운 듯...²⁶⁾

이처럼 고대 한중일 고전문학 속 칭송받는 여성의 머리카락은 ‘검고, 길며, 구름처럼 부드럽고 풍성하게 잘 정리된 머리카락’ 이었다. 이것은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젊고 어린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과 연결되고, 또한 이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단정하

24) 장징,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p.338.

25) 이한창, 『우게쓰 이야기』, 문학과 지성사, 2008, p.135.

26) 전규태, 『한국고전문학대계』, 명문당, 1991, p.19.

게 정리함으로 봉건적 종법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들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닌 여주인공들은 외면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대부분 인품도 고결한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규정짓는 것에서 나아가 때로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비약적인 잣대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미적기준의 도약(Leap of Beauty Standard)’은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동양만의 독특한 미적 인식의 경계선 허물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식의 전도(轉倒)는 ‘외모가 추하면 내면마저 추하다.’라는 극단적인 판단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짧고 뺏뺏한’, 정리되지 않은 ‘산발’ 이 외모뿐만 아니라 때때로 내면도 추한 여성의 기준으로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2) 醜

앞에서 살펴 본 검고 긴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여성의 기준이라면 이와 반대로 짧고 뺏뺏한 동물의 털에 비유한 머리카락은 주로 부정적이고 추함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답지 못한 머리카락을 지닌 여성은 때로는 내면도 아름답지 못한 ‘악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추녀의 과장되게 부정적인 모습에는 여성의 외모에서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머리카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추녀의 형상은 매우 과장되고 흉악하게 묘사된 감이 있으며, 추녀 역시 그의 성품과 행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려져 미/추의 문제가 내면의 덕성과 어느 정도 연관 짓는 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²⁷⁾

가. 짧고 뺏뺏한 머리카락

봉건적 종법질서에 순종하여 자르지 않은 긴 머리가 미인의 필수조건이었다면, 반대로 짧은 머리카락은 추녀의 기준이었다. 또한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박씨전』 속의 변신 전 박씨의 그로테스크한 용모 묘사에서도 ‘짧고 부스스한’ 머리카락이 등장하고 있다.

“그 용모를 보니 형용 흉측하여 보기를 염네론지라. 얼기는 고석갓고 불근 중에, 입과 코와 한테닷고, 눈은 달팽이 구멍 갖고 치불거지고, 입은 크기가 두 주먹을 너허도 오히려 넉넉하며, 이마는 피독이 이마 갖고, 머리털은 쓰르고 심히 부흐니, 그 형용이 차마 보지 못할네라. 상공과 실랑이 한 번 보미 다시 볼 길 업서 간담이 찌러지는 듯 호고 정신이 업서 두 눈이 어두운지라.”²⁸⁾

그리고 변신 후 중국의 미녀 서시(西施)와 양귀비(楊貴妃)를 능가하는 절세가인으로의 변한다. 이것은 지극히 추한 외모에서 미인으로의 변신이 박씨 부인을 설명함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었으며,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가르는 기준으로 머리카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7) 최혜진, 「고전서사에 나타난 외모의 문제와 심미안의 회복」, 『한국문학연구』, 51집, 2016.

28) 김기현 역주, 『박씨전/임장군/배시황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5, p.140.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심청전』의 탐욕스러운 뽕덕어미를 묘사함에 있어서도 짧은 ‘말총같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다.

그 동녀 뽕덕어미라 호난 흘엄이가 잇난디 싱긴 형용 하난 형실만고사기 다 보와도 쪽이 업난 스랍이라 인물을 볼썽시면 빅둥칠일 보너씨면 묵특정병 풀 터이요 육궁 빈더 보와씨면 무안식을 흐것구나. 말총갓튼 머리털리 호날을 갈의치고 되박 이마 해 눈섭의 우먹 눈 주먹코요 매주불 송곳턱의 썰에이 드문드문 입은 큰 케문 열어 논 듯 호고.²⁹⁾

조선후기 작자미상 소설 『장화홍련』의 탐욕스러운 악녀 계모 허씨의 외모를 매파가 소개할 때 그녀의 머리카락을 ‘돼지털’로 묘사함으로 허씨의 추함과 나아가 앞으로 저지를 악행과 장화와 홍련의 시련을 예상하게까지 한다.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한고 소리는 이리 소리같고 허리는 두 아릅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곱배팔이요 수중다리에 쌍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내면 열 사발은 되고 엇기는 콩명석 같으니...³⁰⁾

이것은 착하고 여린 장화와 홍련의 내외적인 아름다움과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변신 전 박씨의 추한 용모를 묘사함에 있어서, ‘매뚜기 이마’, ‘달팽이 눈’을 사용하였고, 부정적인 인물인 뽕덕어미의 ‘말총 같은 머리’, 계모 허씨의 ‘돼지 털 같은 머리’, 에서도 주로 동물로 비유한 점이다. 반면에 아름다운 여주인공 춘향이와 심청이의 미모를 비유할 때는 난초, 삼단과 같은 식물 혹은 구름, 가을의 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여주인공의 미모를 자연의 미와 조화미, 생동미의 자질로 표현한다면 미와 대조되는 추한 외모는 주로 일상 물건이나 동물에 비유되고 있다. 이처럼 추함은 자연미의 체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의 외모와 나란히 쓸 수 없는 물건, 동물, 괴물이라는 부조화로움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³¹⁾ 또한 고대 조선에서 동물과 사물보다는 자연과 식물에 대해서 아름답고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미의식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는 군자(君子)의 이미지를 식물에 부여하고, 패륜(悖倫)을 동물에 비유하는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나. 술이 적거나 빠지는 머리카락

‘구름처럼 풍성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대조적으로 술이 적어 듬성듬성한 머리카락도 추녀의 대명사였다. 중국문학사상 최고의 추녀 한나라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 속의 ‘중리춘(鍾離春)’의 모습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띠엄띠엄 나 있는’ 머리카락이다.

외모는 몹시 추했고, ... 코는 들창코에 목구멍이 튀어나왔고, 목 뒤로는 두둑하게 살이 켜

29) 김진영 외, 『심청전전집』 1, 박이정, 1997, p.31.

30) 진규태, 『장화홍련전』, 『고전문학대계』, 명문당, 1991, p.432.

31) 김문희, 「고소설 속에 나타난 미인(美人)의 표상과 미의식」, 『인문학연구』, 51집, 2015, p.125.

다가 머리카락이 띄엄띄엄 나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가슴이 튀어나왔으며 피부는 옷칠을 한 듯 검었다.³²⁾

한편 빛으로 빚어도 정리되지 않으며 오히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으로 몸과 마음이 추하게 변하고, 이 후 상상을 초월하는 무시무시한 복수를 예고하는 작품이 있다. 일본의 가부키극 중 하나이며, 에도시대의 쓰루야 남보쿠(鶴屋南北)의 대표적 작품이자 일본의 손꼽히는 괴담 『요츠야괴담(四谷怪談)』에서 남편 이에몬(伊右衛門)에게 배신당한 오이와(お岩)가 남편에 의해 독약을 먹고 머리카락이 한 줍씩 빠져나간다. 떨어진 머리카락 끝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참혹한 장면에서는 그녀가 왜 이후에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이와는 몸을 떨면서 이를 검게 물들이고는 이번에는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그러자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그 끝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³³⁾

이후 오이와는 강력한 유령이 되어 비정한 남편 이에몬과 새신부의 가족을 몰살시키는 잔인한 복수를 완성한다. 잔인한 복수의 당위성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이와의 모습은 더욱 추하고 괴기스럽게 표현되고 있고, 그 중심에 빚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있었다.

이처럼 고대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는 ‘동물의 털처럼 뺏뺏한 머리카락’, 정리되지 못한 ‘산발’, ‘빗질을 할 때마다 빠지는’ 풍성하지 못한 머리카락은 추함을 나타내며, 이것은 바로 품성과도 연결되어 악녀로 규정짓거나 혹은 앞으로 저지를 ‘악행’ 혹은 잔인한 복수를 암시하기도 하였다. 풍성한 머리카락에서 유추되는 미(美)의 이미지가 머리술의 적음을 통해 ‘미(美)의 결핍(lack of beauty)’으로 직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다.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산발)

검고 긴 풍성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빚은 머리가 여성의 아름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면 이와 반대로 정리되지 않은 ‘산발’ 한 여성은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추하며, 앞으로 더욱 추해질 것이라는 암시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된다.

일본의 아사이료이(浅井了意)의 『오토기보코(伽婢子)』 제10권 제2화에는 질투가 심한 오카노야시키후(岡谷式部)의 아내가 등장한다. 그녀는 지나친 질투로 남편과 다툰 후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추하게 변한다.

갑자기 머리는 산발이 되고 입은 검붉게 찢어졌다. 눈은 심하게 핏발이 선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그대로 우지강에 뛰어 들었다.³⁴⁾

32) “其为人极丑无双, … 昂鼻, 结喉, 肥项, 少发, 折腰, 出胸, 皮肤若漆”. (유향 지음, 이숙인 옮김, 『열녀전』, 글항아리, 2013, p.250)

33) 김경희, 「잠재된 인간성의 반란, 괴기담」,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 글세상, 2008, p.286.

34) 松田修校注, 『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伽婢子』, 岩波書店, 2001, pp.286-289.

질투심으로 우지강에 투신자살하게 된 오카노야시키부의 아내는 죽은 뒤 수신(水神)이 되어 우지교(宇治橋)를 건너 시집가는 새색시들을 질투해서 못생긴 새색시가 탄 배는 무사히 강을 건너게 했지만, 예쁜 새색시가 탄 배가 지나가면 풍랑을 일으켜 시샘했다고 한다. 가부장적 일부다처제하에서 현모양처의 도리를 벗어나 질투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 상황 속에서 단정하지 못한 ‘산발’은 도덕적으로도 단정하지 못한 부덕을 어긴 질투하는 여성의 추한 모습을 한층 강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의 무로마치시대의 오토기조시(御伽草子) 『かなわ』³⁵⁾에서 자기를 버리고 후처를 맞아들이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질투심에 불타는 전처가 키부네 신사에 가서 복수를 위해 귀신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그리고 신탁을 받아 온몸을 붉게 칠하고, 일곱 갈래로 ‘산발한 머리’ 위에 불을 붙인 가나와(삼발이)를 뒤집어 쓴 채 살아있는 무시무시한 질투의 원령이 되어 남편과 그의 후처를 무차별로 공격한다. 여성으로서 순종과 인내의 부덕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하며 질투하는 모습은 가부장제도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여성의 모습에도 역시 정리되지 않고 형클어진 ‘산발’한 머리카락이 등장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정리되지 않은 ‘산발’의 부정적 이미지는 살아있는 여성뿐만 아니라 죽은 여성, 주로 원한으로 죽은 여성들의 이미지와 맞물려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기도 한다. 청초의 포송령의 『聊齋志異』 속의 아름다운 가난한 농가집 소녀 두씨의 딸은 남산복의 감언이설에 속아 임신하지만 문전박대를 당하고 아이를 껴안고 얼어 죽는다. 그녀는 죽음 이후로 이전의 아름답고 순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남산복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아가씨의 아버지 꿈에 무시무시한 ‘산발’로 나타난다.

남산복과 혼약을 맺은 대갓집 주인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산발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더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배신자에게 딸을 시집보내지 마시오. 만약 혼인을 시킨다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딸을 죽이겠소.’³⁷⁾

이윽고 배신자 남산복으로 하여금 점점 알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공포와 불안으로 정신적 공황에까지 이르게 하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다. 그리하여 『聊齋志異』 속의 가장 음산하고 무섭고 잔인한 복수를 완성하였다.³⁸⁾ 그녀의 ‘산발’은 그녀가 봉건적인 제도와 규율의 억압 속에 가려져 있던 마음 속 깊이 내재해 있던 본연의 원망의 모습들이 죽음 후, 이전의 자신을 옅어매었던 모든 굴레에서 벗어 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에도시대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의 『우게쓰모노가타리(雨月物語)·아사지가야도(浅茅が宿)』의 여주인공 미야기의 남편 가츠시로는 기울어가는 가세를 살리기 위해 부인인 미야기(宮本)에게 집안을 맡기고 상경해버린다. 그리고 7년 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인의 묘라

35) 『室町時代物語大成』, 角川書店, 1983.

36) 졸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 41집, 2012, p.73.

37) 其大家夢女披發抱子而告曰: “必勿許負心郎: 若許, 我必殺之!” (김혜경, 『요재지이』 1-6, 민음사, 2002)

38) 安国梁, 『聊齋釋真』, 中州古籍出版社, 1993, p.142.

도 만들어 줘야겠다 생각에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돌아온 집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아내 미야기는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모습과는 다소 달라진 모습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빛이 검어지고 여위었으며 눈언저리는 폭 꺼진데다가 곱게 땀났던 머리로 어깨까지 풀어져 내린 모습이 지난날 아름다웠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39)

하루밤을 같이 보내고 이튿날 깨어보니 집은 황폐한 모습이었고 집 한쪽에는 아내 미야기(宮木)의 무덤이 있었다. 그리고 이웃노인을 통해 미야기가 남편이 꼭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전란의 와중에도 피하지 않고 기다리며, 또한 죽어서도 영혼의 모습으로 남편을 기다렸음을 알게 된다. 미야기의 지난날의 단정했던 아름다운 모습에서 ‘머리가 풀어져 내린’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의 변화는 그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으며 결말 또한 파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성의 머리카락이 외면적으로 현세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학작품 속에서는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장(章)을 바꾸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초월적(超越的) 이미지

(1) 긍정적인 이미지

가. 영혼의 일부, 자신의 분신

고대 여성들은 시냇물에 머리를 감고, 특별한 절기 단오에는 창포물에 감으며, 아침저녁 빗으로 정성스럽게 빗질하며 자신의 외면과 내면을 가꾸었다. 또한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새벽에 한 올의 형클어짐도 없이 빗어 단정하게 쪽진 머리로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남자들이 단발령에 저항하여 상투 대신 목을 내놓은 것처럼 여성들은 죽음보다 깊은 ‘실연’의 고통을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변형시킴으로 자신의 아픔을 소리 없이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머리카락을 단순히 신체 한 부분의 털로 생각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현상은 한중일 삼국 문헌과 풍습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오승은의 『西遊記』에서 손오공이 수세에 몰릴 때 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자신의 분신들을 만든 점도 결코 우연은 아닌 듯하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字典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머리카락은 ‘발, 근야(髮, 根也)’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마치 뿌리처럼 영양분을 빨아들여 한 사람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머리카락이 신체의 다른 기관이 아닌 머리에서 자라기 때

39) といった黒く垢づきて、眼はおち入りたるやうに、結たる髪も背にかかりて、故の人とも思はれず、夫を見て物をもいはで潜然となく。(中村幸彦, 『上田秋成全集』 第七卷, 中央公論社, 1990)

문에 머리카락은 신성한 것이고 사람의 영혼, 정신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던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은 머리카락을 단지 신체의 드러난 한 부분의 ‘아름다움’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악부시집(樂府詩集)·초중경처(焦仲卿妻)』에 “머리를 묶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 저승에서도 함께 합시다.(結髮同枕席, 黃泉共爲友)”라는 구절이 나온다. 머리카락을 묶는다는 ‘결발’에는 은혜와 의리를 강조하는 의미가 담겼기에 결발 부처(結髮夫妻)란 처음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를 뜻하였다. 또한 신혼 첫날밤 신랑 신부가 각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함께 묶어 한마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풍습이 있었다. 혼인을 약속하면 신부가 자신의 머리를 묶은 후 비단 끈으로 묶어서 올렸고, 초야에 신랑이 손수 풀어주었다. 이 모든 의식은 머리카락을 자신의 영혼이 담겨있는 자신의 분신으로 보았던 고대 중국인들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세시풍속 ‘소발(燒髮)’ 풍습도 머리카락도 부모에게 물려받았으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더불어 머리카락·손톱·치아 등 신체의 일부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주술적 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신체 일부분이 주인의 분신(分身)으로 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머리카락 등을 함부로 버리면 화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떨어진 머리카락을 불로 태웠던 조심성을 엿볼 수 있다. 여성들이 머리를 빗을 때 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상자 등에 모아 두었다가 설날 해가 질 무렵 문밖에서 불에 태워 엽염으로 전염병과 같은 나쁜 병을 물리친다고 믿었으며, 충청도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는 설날 그믐날 밤에 태우기도 했다고 한다.⁴⁰⁾

한편 고대 일본에서도 ‘머리카락’을 자신의 영혼이 담긴 분신으로 보고, 주술적인 힘을 믿었던 기록들이 나온다. 자신 혹은 타인의 머리카락을 묻거나 신전에 바침으로 제물과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였다.⁴¹⁾ 고대 일본여성들은 남편의 무사귀환을 위해 사원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바치기도 하였다. 일본 최고(最古)의 시가집 『만요슈(萬葉集)』에서는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끈을 만들어 주며 무사귀환을 바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머리카락이 자신의 영혼이 깃든 분신으로 본 것은 여염집 여성들뿐만 아니라 화류계의 유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고객에게 단발(斷髮), 절지(折脂)등으로 나름의 진심을 표현하였다.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에서 유녀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어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삼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이처럼 고대 한중일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여성의 육체 중 유일하게 남성에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으로 여성의 협소하고 닫힌 삶 속에서 외부와의 소통으로 연장되는 선상에 있으며 동시에 남성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외부세계로의 확장이기도 하였다.⁴²⁾

40) 당나라 학자 손사막(孫思邈)이 쓴 『천금방(千金方)』이라는 의서(醫書)에 “정월 인일(寅日)에 백발을 태우면 길하다.”고 하였는데,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는 설날의 소발풍습이 여기에서 연유한 것이라 보았다.

41) 切愛子如御髮、捧御幣出庭中、咒咀諸神等事也。(『小右記』(寛仁元年(1017년) 11月23日, p.272)

42) 김영,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 고찰」, 『日語日文學研究』, 84, 2012, p.125.

나. 감정표출의 단서와 통로

한편 여성의 머리카락이 자신의 분신 즉 자신을 내어줌으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였으나 일부 작품 속에서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자신의 ‘원망과 질투’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본 最古의 설화집 『곤자쿠모노가타리슈(今昔物語集)』 31권 제10화 「오와리(尾張國) 지방의 마가리노쓰네카타(勾經方)가 꿈에 아내를 본 이야기」의 마가리노쓰네카타(勾經方)에게는 본처 외에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었다. 본처의 질투가 워낙 심하여 남자는 관청에 간다는 핑계로 그 여자의 집에 몰래 들렀다가 잠시 잠이 들고 꿈에 본처가 찾아 와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본다. 남자는 꿈에서 깨어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본처가 그 여자의 집에서 지내고 온 것을 나무라자 남자가 시치미를 떼다. 그 순간 본처의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선다. 남편의 외도와 거짓말에 대한 여성의 분노의 마음이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서는’ 모습으로 표출된다. 여성의 질투의 표현이 최악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남편에 대한 외도에 대한 분노와 상대방 여성에 대한 질투심의 표현을 최대한 억누르지만 머리카락은 본능적으로 숨기지 못하고 ‘머리카락이 일제히 곤두섬’으로 자신의 내면의 깊은 감정이 그대로 분출되고 있다.⁴³⁾ 같은 책 제24권 20화의 이야기에든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고 난 후 아무도 물어주지 않아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방에 누워 있는 여자가 나온다. 죽은 아내의 저주를 두려워한 남편은 음양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음양사는 원령이 되어 복수하고자 하는 죽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밤새도록 꼭 붙잡고 놓지 말라고 당부한다. 죽어서든 ‘빠지지 않은 머리카락’으로 버림받은 여성의 깊은 원망과 원한을 드러내며, 동시에 남편으로 하여금 머리카락을 밤새도록 놓치지 말고 꼭 붙잡도록 한 행위는 여인의 원망과 원한이 복수와 저주로 확산되길 바라지 않았던 봉건적 가부장사회의 바램이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아름답던 혹은 추하던 머리카락은 여성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현대 공포영화에서 원혼이 깃든 죽은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쓴 여성들에게 그 원혼이 들어가 무시무시한 복수를 자행하는 것도 머리카락의 이러한 힘을 믿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성의 원망과 질투의 표현통로로서의 머리카락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이는 순수한 여성의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게 해주는 건전한 통로역할을 해주는 카타르시스의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부정적인 이미지

가. 치명적 유혹의 상징

J. 하우얼은 “여자의 머리카락 하나가 수백 마리 황소보다 더 많은 짐을 끌 수 있다.”고 말

43) 졸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 41집, 2012, p.73.

했으며, 일본의 중세 수필집 『쓰레즈레구사(徒然草)』 제9단에서도 작가 겐코법사는 ‘여성의 머리카락으로 엮어 만든 밧줄로는 코끼리도 붙잡아 댈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가늘고 여린 여성의 머리카락이 황소와 코끼리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남성의 영혼도 붙잡아 매어둘 수 있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남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두 이야기 모두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성을 가장 현저하게 특징짓는 표상이며, 여자의 성을 어필하는 유효한 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머리카락에 대한 애욕과 욕망의 시선은 문학작품 속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반금련, 춘매처럼 불륜과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는 요부형 여성인물들이 난무하는 중국최고의 성애소설 『금병매(金瓶梅)』 속의 여주인공 반금련은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빼어난 용모를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반금련은 서문경의 다른 여인들도 그녀를 ‘하룻밤도 남자가 없으면 지낼 수 없는 여인(一个夜少了男人也过不得的女人)’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음욕이 강한 요부였다. 吳神仙이 그녀의 관상을 보고는 ‘淫氣’를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그녀의 ‘농후한 머리카락’이 등장한다.

“이 부인은 머리카락이 濃厚하고, 살점이 두툼하며 눈을 비껴 보니 매우 ‘淫’하겠습니다.”⁴⁴⁾

또한 바람둥이 서문경이 처음으로 그녀를 보았을 때도 제일 먼저 머리카락으로 그녀의 미모를 묘사하고 있으며,⁴⁵⁾ 서문경의 혼을 빼앗는 그녀의 유혹적인 몸치장 묘사에서도 역시 제일 먼저 그녀의 ‘칠흑 같은’ 머리모습이 나오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이처럼 중국고전문학사에서 최고의 음부(淫婦)와 요부(妖婦)로 손꼽히는 반금련의 치명적인 모습으로 그녀의 ‘농후하고 칠흑같은 머리카락’이 등장하고 있다. 음란하고 사악한 그녀는 결국 인과보응으로 시동생 무송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음으로 여성의 불륜과 욕망추구를 부정·금기시하고 죄악시키는 당시의 여성관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⁴⁶⁾

조선 문학사 중 최고의 유혹녀인 『배비장전』의 애랑도 ‘흑운같은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목욕하는 모습으로 배비장의 애간장을 녹이며, 그를 유혹하는데 성공한다.

흑운같이 생긴 채진 머리 활활 떨쳐 갈라내어 구룡 도수 늙은 용이 물결 뒤편 벽화춘천격으로 후리쳐 두 손으로 쥐는 양은 금붕차가 좋을시고.

이러한 애욕과 욕망의 이미지로서의 ‘머리카락’은 일본문학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일본 고전소설의 백미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서는 겐지가 오랫동안 잊지 못한 옛 연인 유가오(夕顔)가 남긴 딸 다마카즈라의 머리카락의 관능미에 매료되어 헤어 나오기 힘든 애욕의

44) “此位娘子，髮濃鬢重，光斜視以多淫”。(『金梅詞話』上下，人民文學出版社，2000)

45) ‘칠흑 같은 머리에는 윤기가 흐르고, 초승달처럼 굽은 길은 눈썹, 파랗고도 차가운 듯한 살구 같은 눈, 향기를 내뿜을듯한 앵두 같은 입술’ (黑鬢鬢賽鴉翎的鬢兒，翠灣灣的新月的眉兒，清冷冷杏子眼兒，香噴噴櫻口兒。)(『金梅詞話』上下，人民文學出版社，2000)

46) 송지연, 『금병매의 여성형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39.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방 쪽으로는 딱 시원할 정도의 불빛이 비취, 여자의 아름다움이 도드라져 보였다. 머리카락의 감촉이 차가운 것도 요염한 기분이 들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운 겐지는 돌아갈 맘이 들지 않았다.⁴⁷⁾

겐지는 양부의 자격으로 다마카즈라의 처소를 방문했다가, 거문고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가까이 다가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구혼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모자식 사이이기 때문에 남녀관계는 힘든 상황이었으나, 히카루겐지는 자신의 정념을 어찌지 못해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다마카즈라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연정을 호소하는 애처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⁴⁸⁾

한편 사악하고 음란함의 대명사인 여우의 음녀(淫女)의 이미지에 여우의 풍성한 꼬리털을 여성의 머리카락과 교차시켜 유혹과 관능의 이미지를 증폭시키기도 하였다.⁴⁹⁾ 『古今著聞集』 제6권 265화에서 「다다자네가 대권방이라는 승려로 하여금 다키니 주법을 행하게 한 일 및 북천신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여우가 다키니 신앙 속의 폭악 여신, 카리의 시녀로, 사람의 죽음을 육개월 전에 알아내어 범술로 그 심장을 따 먹는 악의 화신으로 나온다. 다다자네의 꿈에 여우(다키니 신)가 변한 미인이 나타난다.

아름다운 여인이 배계 곁을 지나갔다. 머리카락은 가사네 옷자락보다도 삼척 정도나 길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요염하기 그지없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꼭 붙들어 버렸다. ... 꿈에서 깨어 실제로 손에 무언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우의 꼬리였다.⁵⁰⁾

아름다운 여인의 긴 머리카락과 한중일 공통으로 내려오는 사악함과 음란의 대명사인 여우의 꼬리를 교차시켜 유혹의 이미지를 증폭시키고 있다.

나. 애욕과 욕망의 단절로서의 삭발 또는 출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의 머리카락이 때로는 남성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부정적

47) 御前の方は、いと涼しくをかしきほどなる光に、女の御さま見るにかひあり。御髪の手当りなど、いと冷やかにあてはかなる心地して、うちとけぬさまにものをつつましと思したる気色、いとらうたげなり。帰りうく思しや すらふ。(阿部秋生 外 校注・譯『源氏物語』, 小學館, 1995, p.256)

48) 신미진, 『일본 전통 미의식 에로티시즘의 수용양상 연구』, 『일본연구』, 67집, 2013, p.213.

49) 고대 한중일 삼국에는 여우가 美女로 둔갑한 뒤 자신이 선택한 男性에게 美貌와 嬌態로 유혹하여 그 남성을 자신의 양식(먹이감)이나 精氣 탈취의 대상으로 삼는 이야기다 많다. 한국 설화 「여우구슬」와 중국 위진남북조 간보의 『搜神記』 18권「阿紫」는 아름답지만 음탕한 아자라는 암여우에게 홀린 남성의 이야기이다. 중국에서도 당시 성행했던 여우 신앙과 더불어 도교의 호선(狐仙) 관념과 선(仙)이 되기 위한 채보(採報)술의 영향으로 여우 구슬에 관한 설화가 많이 유행하였다. 즉 여우가 인간의 성교방식을 통해서 수련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암 여우가 남자를 유혹하여 양기를 채집하여 성선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채보술이 여우의 주요 수련 방법으로 간주된다.

50) 김태광, 「금석물어의 여우담 연구」, 『일본학보』, 44집, 2000, p.240.

이미지를 불러일으킴으로 인해 한중일 문학 작품 속 여성들은 이러한 애욕과 욕망의 발단이 되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삭발’을 통하여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한중일 고대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출가하는 것은 사회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표현이었다. 여성의 대표적 미적 기준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출가한다는 것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규범, 즉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름의 적극적인 행위이다. 번뇌로 가득한 ‘속세’를 떠난다는 구도(求道)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남성에 의해 구축된 관능성이 강조된 머리카락을 버린다는 것, 여성성을 버리고 속세의 행복 추구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해탈(解脫)의 의미도 담겨있다. 51)

일본 중세 설화집인 『이마모노가타리(今物語)』에서는 사랑의 좌절을 경험한 여자가 ‘끊임 없이 한탄이 되었던’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남성에게 잘라 보내고 여승이 된다는 줄거리가 등장한다. 노보(女房) 마츠도노는 오랜만에 다시 찾아 온 님에게 다시는 ‘사랑으로 괴로워하지 않음’을 머리카락을 잘라 보냄으로 그녀의 출가 의지를 밝힌다.

‘이 기회에 평소의 끊이지 않았던 한탄을 드러내 보자’라고 마음먹고 자신의 키보다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 내어 얇은 흰 종이에 싸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다시 당신과의 사랑으로 괴로워하라 하시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늘 같은 한탄뿐인 처지인 것일’ 이라고 적어, 보내 온 수레에 넣어 보냈다.⁵²⁾

버림 받은 여성이 스스로 자른 머리카락을 상대 남성에게 보내고, 자신이 출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에는, 잘라도 잘라도 다시 자라나는 상대방에 대한 욕망을 일거에 잘라버리는 사랑의 극적인 단절을 알리는 여성의 자기주장이 담겨있다.⁵³⁾

조선후기 대문호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은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제자 성진(性眞)을 일깨우기 위해 육관대사(六觀大師)가 설정한 환몽의 세계를 경험한 뒤 그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 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 꿈에서 깨어난 성진은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육관대사의 후계자가 되어 열심히 불도를 닦고, 이에 팔선녀도 ‘인간세상이 한 꿈임’을 철저히 깨닫고, 성진을 유혹하던 ‘연지분’, ‘비단옷’ 마지막으로 ‘흑운 같은 머리’를 깎는 철저한 출가로 불문에 귀의하여 극락세계에 들어간다.

팔선녀가 물러나, 낮 위에 가득한 연지분(胭脂粉)을 씻어 버리고, 온 몸에 걸친 비단옷을 벗고, 흑운(黑雲) 같은 머리를 깎고 다시 들어와 사죄었다. “제자들이 이미 외모를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님의 교훈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⁵⁴⁾

그렇기 때문에 애욕과 욕망의 머리카락을 남겨 둔 다소 불완전한 출가가 완전한 해탈에

51) 이미령, 「원시물어에 나타난 여성출가의 의미」, 『일본언어문화』 14, 2009, p.401.

52) 「これにこそ、日ごろのつきせぬ嘆きもあらはさめ」と思ひつよりて、丈に余りたりける髪を押し切りて、白き薄様に包みて、いまさらにふたたび物を思へとやいつもかはらぬ同じうき身にと書き付けて、御車に入れてまらせたりける. (『今物語』, p.153)

53)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출가」, 『동아인문학』, 34집, 2016, p.108

54) 김만중, 김병국 옮김, 『구운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289.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문학의 집대성인 조설근의 『홍루몽(紅樓夢)』의 ‘금릉십이채(金陵十二釵)’의 한 명인 여승 묘옥은 치료를 위해 불문에 귀의하여 ‘머리를 기른 채’ 수행하였는데, 불도에 귀의하자 몸이 좋아진다. 묘옥은 출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보옥을 사모하여 참선에 집중하지 못하며, ‘마음은 이미 암자에 있지 않았다.’⁵⁵⁾ 그러나 불문에 몸담고 수도에 전념하고자 한 그녀의 간절한 소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묘옥은 납치된 후 뒷일을 알 수 없게 되고, 다만 ‘아끼던 그 몸도 끝내는 더럽혔거든. 티 없는 옥을 진흙 속에 빠뜨리고서’라는 구절에서 그녀가 도적들에게 몸을 더럽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애욕과 욕망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불완전한 출가는 세속적인 남녀의 정을 끊지 못한 수행으로 이어져 그 결과가 아름답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⁵⁶⁾

3. 나가며

이상으로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머리카락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작품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머리카락이 현세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는 기준에서 나아가 초월적인 이미지로 자신의 분신 혹은 감정표출의 통로로 보기도 하며 또한 유혹과 욕망의 이미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우선 삼국의 고전문학 속 여성의 머리카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삼국 모두 유교의 영향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 것이 인간윤리의 시작으로 보고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겨 자르지 않는 철학같이 검고, 구름처럼 풍성한 단정하게 정리된 긴 머리카락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짧고 뽕뽕하며, 빠져서 술이 적은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은 추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삼국 모두 머리카락과 관련되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도 당대의 사회가 요구하던 윤리적 예교의 억압과 미적인 기준이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 이외에도 삼국의 독특한 문화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하여 여성의 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있는 다소 다른 시선도 발견하게 된다. 먼저 중국과 한국은 강력한 유교의 영향으로 머리카락을 예절과 전통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이를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양국이 보다 철저한 유교적 전통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양국

55) 자신의 참선 좌복(방석)이 이미 뚝 바르게 준비되어 있으므로 주립을 내리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망상을 버리고 진여의 경지에 이르려고 했다.……중략……묘옥은 문득 낮에 보옥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면서 귀 밑이 후끈거렸다.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선방으로 들어가 참선 좌복에 앉았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천지가 만마가 달리듯 진동하면서 좌복이 흔들리며 몸은 이미 암자에 있지 않았다. 수많은 왕손공자들이 자신을 아내로 삼으려 달려드는가 하면 매파들이 달려들어 수레에 태우려 했다. 묘옥은 가지 않으려 했다.……중략……며칠이 지난 후 묘옥의 병은 얼마간 나았다. 그러나 정신은 아직도 흐리멍텅해 있었다. (『紅樓夢』 第87回, pp.1277-1288)

56) 줄고,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출가」, 『동아인문학』, 34집, 2016, p.103.

간의 문학적 교류가 일본에 비해서 보다 원활하여 공통의 의식과 잣대를 공유하게 되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유교적 윤리체제와 그 끝없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교리와 도덕성의 강조보다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중시하고 그것에 충실한 일본인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일본 특유의 괴기스럽고 그로테스크한 정서와 맞물려 머리카락 관련된 괴담과 페티시즘으로까지 굴절된 미의식이 생성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서 묘사되는 여성의 머리카락은 단지 외면적인 아름다움의 평가를 판단하는 대상으로서의 명사, ‘재료’(material)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여성의 한 부분이지만, 결코 여성의 일부라 부를 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사라지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일생을 바쳐서 바라고 추구하는 사랑과 욕망의 투영체로서의 전부인, 형용사로서의 ‘중요한’(material) 그것, 그 자체였다.

【참고문헌】

- 김경희, 「잠재된 인간성의 반란, 괴기담」,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 글세상, 2008.
 김기동, 『이조해학소설선』, 정음사, 1975.
 김기현 역주, 『박씨전/임장군/배시황전』,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95.
 김만중, 정병설 역, 『구운몽』, 문학동네, 2013.
 김진영 외, 『심청전전집』 1, 박이정, 1997.
 김문희 외 역주, 『조씨삼대록』, 소명출판사, 2010.
 김문희, 「고전소설의 인물묘사와 독서미감」, 『어문학』 제120집, 2013.
 김문희, 「고소설 속에 나타난 미인(美人)의 표상과 미의식」, 『인문학연구』, 51집, 2015.
 김 영, 「일본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 고찰」, 『日語日文學研究』, 제84집, 2012.
 김태광, 「금석물어의 여우담연구」, 『일본학보』, 44집, 2000.
 김혜경, 『요재지이』, 민음사, 2002.
 박연숙, 『오토기조시』, 지식과 교양, 2017.
 송지연, 『금병매의 여성형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신미진, 「일본 전통 미의식 에로티시즘의 수용양상 연구」, 『일본연구』, 67집, 2013.
 유키나가, 오찬욱 역,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 문학과 지성사, 2006.
 유 향 지음, 이숙인 옮김, 『얼녀전』, 글항아리, 2013.
 이경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중국학』, 41집, 2012.
 ———,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출가」, 『동아인문학』, 34집, 2016.
 이미령, 「원시물어에 나타난 여성출가의 의미」, 『일본언어문화』, 14집, 2009.
 이상구 역주, 「상사동기」, 『17세기 애정기소설』, 월인, 1999.
 이한창, 『우게쓰 이야기』, 문학과 지성사, 2008.
 장 정, 『미녀란 무엇인가』, 뿌리와 이파리, 2004.
 조용진, 『미인』, 해냄, 2007.
 진규태, 『심청전』, 한국고전문학대계, 명문당, 1991.
 ———, 『장화홍련전』, 고전문학대계, 명문당, 1991.

- 최혜진, 「고전서사에 나타난 외모의 문제와 심미안의 회복」, 『한국문학연구』, 51집, 2016.
- 『金梅詞話』(上下), 人民文學出版社, 2000.
- 安國梁, 『聊齋釋真』, 中州古籍出版社, 1993.
- 浦松齡, 張友鶴校, 『聊齋誌異』, 上海古籍出版社, 1978.
- 馮夢龍, 『警世通言』, 北方文藝出版社, 2016.
- 松田修校註, 『新日本古典文學大系75·伽婢子』, 巖波書店, 2001.
- 阿部秋生 外 校註·譯 『源氏物語』, 小學館, 1995.
- 中村幸彦, 『新編日本古典文全集 — 雨月物語』, 小學館, 1995.
- _____, 『上田秋成全集』, 第七卷, 中央公論社, 1990.
- 井原西鶴 校註 暉峻康隆, 東明雅 『好色五人女』、『井原西鶴集 1』, 小學館, 1996.
- 藤岡忠美, 『紫式部日記』,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 小學館, 2003.
- 編輯部, 『新版 好色五人女 現代語譯付き』, 東京:角川ソフィア文庫, 2008.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女性, 头发, 韩中日, 古典文学, 比较文学		
Key Words	영문	Women, Hair, East Asian, Ancient literature, Comparative Literature		
<div>‘Woman's hair’ in Ancient East Asian Literature</div> <div>Lee, Kyung-Mi</div> <p>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meaning of the women’s hair in ancient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lassical literature by dividing them into modern meaning and transcendental meaning, and also examined the women's view reflected in them. Because Confucian ethics took long hair, unharmed and not cut in any body part from parents was seen as the starting point of Hyo(孝), and on the perception that 'youth is beauty', she regarded women with long, rich black, well-organized hair as beautiful women and conformed to feudal order. To the opposite, women’s short, stiff, or missing, unorganized hair is considered as ugly, and sometimes it is extended to define women’s inner character. This hair not only served as a standard of modern beauty that separates the beauty and ugliness of women, but also transcendently as a part of their own alter ego or soul, and as a result of being cut off to the image of love and faith by cutting to their lovers, as a deadly temptation toward men, as a negative incarnation of desire and desire to bring defilement to women The polymorphism of these women's hair can be seen in various forms through ideological, cultural and soil differences of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경미 / 李京美 / Lee, Kyung-Mi		
	소 속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Em@il	jingmei@gdsu.dongseo.ac.kr ; leejingmei@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9월 03일	심 사 일	2018년 09월 06일
	수 정 일	2018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8년 09월 22일